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II'

# “끓여서 맛있게 마시는 것이 ‘茶’ 비움과 채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 강진 백련사 여연스님 '차의 미학'

“맑은 달을 촛불과 벗으로 삼고/ 흰 구름으로 자리 깔고 병풍을 만든다/ 댓잎 소리 숲의 소리 한 가지로 소슬하고/ 뼈에 사무치는 맑고 찬 기운에 마음도 깨어난다...”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년)가 남긴 동다송(東茶頌)의 한 구절이다. 차는 번잡스럽지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고 고요하고 맑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초의의 '차살림살이'도 이처럼 담백하고 맑았다.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인문학강좌II'가 열린 15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는 그윽한 차 향기가 가득했다.

사회자가 이날 강의에 나선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 스님에 대해 “국내 차의 대가”라고 소개하자 스님은 손사래부터 쳤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복잡할수록 사기꾼에 가깝다”는 스님에 말에 200여 명의 수강생은 웃음을 터뜨렸다. ‘차의 미학’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의 핵심은 바로 ‘담백한 명함’이 상징하고 있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디지털시대는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

어요. 사람들은 품 잡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차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끓여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초의선사의 맥을 이어받아 지난 40여년간 차를 타고, 뛰으며 살아온 스님의 첫 일성은 다소 의외였다. 또한 뭔가 멋져보이는 ‘차의 미학’을 기대했던 수강생들도 “차의 미학은 없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것을 뜻하는 ‘구중구포 차’의 허상에 대한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구중구포는 사기에 가까운 허풍입니다. 녹차는 발효를 10% 미만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처럼 구중구포를 해서 는 절대 좋은 차가 나올 수 없어요. 또 마시는 방법도 밥상을 차리듯 자연스럽게 차려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강의 첫 머리에 꺼냈던 ‘있는 척’하는 잘못된 생각이 차를 더욱 멀게 한다고 강조했다. 꾸며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게 ‘차 미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차를 마시는 예절인 다례는 흔히 ▲순님을 맞이하는 다례 ▲일상에서 편하게 마시는 생활다례 ▲부처와 고승들에게

바치는 헌공다례 ▲길거리나 시장 등지에서 서서 마시는 입식다례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새 그릇을 밥상에 올리듯 헌공다례 등은 절차와 격식이 필요하지만 일상에서는 편하게 차를 마시면 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다방이 있어 누구나 편하게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부족한 마음, 흠어진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를 갖추는 게 다례입니다.”

지나친 격식을 따지다 보니,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라져갔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해 1인당 600g의 차를 마시는데, 우리는 100g만 마셔요. ‘차를 마시는 국민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국민은 망한다’는 말처럼 차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차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잡념과 욕심을 버리고 내실을 채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연스님은 차의 성지로 불리는 일지암 암주를 지냈으며 초의차 연구회를 설립하고 초의상 심사위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차 문화콘텐츠학과 책임교수, 한국차문화협회 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원 부설 한국차품질평가교육원을 개설해 우리 차 산업의 기초를 확립했고,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5일 여연스님이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우리 차의 소중함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우제길 작품세계 담긴 화집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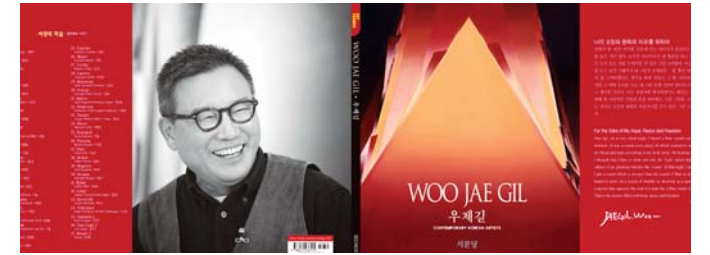
## 서문당, 현대화단 대표작가 11명 작품집 펴내

다양한 빛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고 있는 중진 서양화가 우제길 화백의 작품 세계가 담긴 화집이 나왔다.

도서출판 서문당은 한국현대미술 시리즈 1차분으로 국내 현대 화단의 대표적인 작가들인 곽훈·김태호·윤명로·우제길·이두식·이숙자·이월중·이일호·정강자·정문규·함섭씨의 작품집을 냈다.

작가마다 시대 순으로 분류, 일생동안 그린작품들을 총정리하여 수록했다. 또 작품명, 작품해설, 작가노트, 평론 등 모든 내용에 영문을 병기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편의 평론과 작가 노트 등을 곁들였다.

우 화백의 화집에는 지난 1955년(13세)부터 현재까지 작가의 독



특한 작품세계가 시대별로 잘 정리됐다. 회화, 플라쥬, 판화, 입체작품, 다양한 미술 관련 자료, 우제길미술관 소개 등이 책에 담겼다.

그는 우씨는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비엔날레, 현대국제 미술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대상(예술부문), 현산문화상, 한국미술협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가격 1만원. /오광록기자 kroh@

# 반짝임의 정체는 날카로운 칼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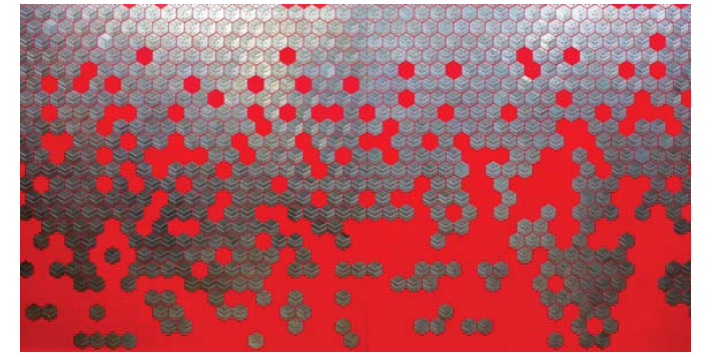
## 박준선 초대전 21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

커터 칼날을 이어붙인 이색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양화가 박준선씨가 오는 21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유화물감과 커터 칼날로 인간의 감성을 형상화한 신작을 발표한다.

유화물감으로 색면 작업을 한 뒤 그 위에 입방체 형태의 커터 칼날과편으로 화면을 매운 작품이다. 칼날의 날카로움과 은빛, 유화물감의 화려한 색이 어우러져 묘한 울림을 준다. 칼날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사람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면을 담았다.

박씨는 “커터 칼날이 이성 중심의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상징이라면, 색면은 이성의 질서에 통제 받는 무의식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훈 미술대학을 나온 뒤 서울과 광주주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



'red and armor'

었고, '화화호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민요·재즈의 어울림 '송년국악대잔치'

## 표민족음악교류협 20일 문예회관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이사장 김광복)가 주최하는 '송년국악대잔치'가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이광수(대불대 전통연희학과 학과장)씨와 풍물팀 '하늘다래'의 '송구영신' 비나리리 문을 열며 유지숙(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위원)씨의 서도 소리 '수심



김광복 교수

가, 서영·김혜진씨의 '태평무'와 '한량무', 이은하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등의 무대가 이어진다. 재즈 피아니스트 J.C 클락과 피리 연주자 김광복씨가 꾸미는 무대에서는 '술과 장미의 나날' 등을 즉흥 연주로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011 광주연극인상'

## 임준형·정순기씨



임준형씨 정순기 대표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가 15일 2011년 광주연극인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지난 2007년부터 광주연극협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기획과 홍보를 담당한 임준형(44)씨와 올해 전국연극제에서 '막차 타고 노을 보다'로 금상을 수상한 극단 더 정순기(43) 대표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 세정아울렛 3층 엘리시아에서 열리는 '연극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

# 광주국악협 개량가야금 무료 강습

12월 정통 가야금이 아닌, 개량 가야금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국악협회(회장 이대휴)는 17~18일 광주교육대 음악홀에서 15현 개량 가야금 시

연회를 갖는다. 또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량가야금 무료 강습도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16일까지. 문의 062-524-8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e쿠스쿠스패밀리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Merry Christmas



쿠스쿠스: 광주수완점  
광주신세계점(12월 OPEN)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

